

송정역 환승센터 개발사업 '백지화'

시, 사업종료 최종 통보...사업자, 소송 검토 업체선정 5년만에 원점으로...주차타워 건립

광주시가 5년째 표류해온 2,000억원 대 규모의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하고, 사업자 측에 최종 사업종료를 통보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사업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 측은 광주시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행정효력정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8일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에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종료'를 통보했다.

지난 2013년 7월 24일 협약체결 이후 사업기간인 2017년이 지나도록 장기간 사업진척이 없고, 한국철도공사와 진행

해온 환승주차장 협상도 무산됨에 따라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광주송정역 일대 19만㎡ 부지에 환승·판매·업무 등 시설과 함께 7,200㎡ 규모의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종료 결정에 따라 2010년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 7년6개월, 서희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4년11개월 만에 사업이 백지화됐다.

광주시는 복합환승센터 대신 코레일 주도로 300억원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

이다. 사업규모도 복합환승센터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타워건립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환승센터가 주차타워로 변경될 경우 1913송정역시장 등과 연계한 문화시설 대신 1,500㎡ 규모의 주차빌딩과 편의시설 일부만 들어설 전망이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광주시와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업종료 통보에 따른 법적 소송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취소와 함께 그동안 소요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송정역 이용객이 급증하는데도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늦어지면서 주차난 등 시민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아 사업종료를 통보했다"며 "공공개발로 주차타워를 건립하면 재정적 부담을 덜고 공사기간도 짧아져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목포시 부흥산 현충탑에서 열린 가운데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국가유공자, 유족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전남 농수산물식품 746만달러 '수출협약'

전남도는 6일 "농수산물식품의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3일까지 사흘간 목포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어 746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전남도 해외통상사무소 공동으로 바이어를 몰색해 미국·인도·일본·유럽 등 11개국에서 20명의 바이어를 초청했다. 전남지역 참가 수출기업은 72

곳이다. 상담회 결과, 장흥식품 등 5개 기업이 미국 왕글로벨넷(WANG GLOBALNET)사와 230만달러의 계약을 이룬 것을 비롯해 25개 기업이 13명의 바이어와 총 746만달러어치의 계약(MOU포함)을 체결했다. /정근산 기자



6·13 지방선거 레이다 D-6



이용섭 "한반도 평화 계승"... 현충탑 참배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6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로 선열들의 뜻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구청장, 시·구의원 후보들 및 지지자 500여명과 함께 광주공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일제 침탈에 맞선 독립운동부터 6·25전쟁, 5·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

지 나라를 지키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선열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순국선열의 거룩한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추모했다.

이 후보는 최근 한반도 평화모드에 대해 "이번에야말로 항구적 평화가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한마음으로 단결해 평화의 꽃을 만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덕영 "지역 보훈단체 지원 앞장설 것"

전덕영 바른미래당 광주시장 후보는 6일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전 후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당연한 도리"라며 "조국에 헌신·봉사한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25,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의 헌신적 공헌에 비해 보상·복지 서비스는

미흡하다"며 "당선되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지역 보훈단체의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후보는 "70년을 이어져 온 남북대결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면서 "애국선열의 희생을 잊지 않고, 전쟁없는 한반도를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 모든 정치권이 여야와 정파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기철 기자



김영록, 현충일 추념식 참석...차분한 선거운동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6일 광양시 중동 현충탑 광장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김 후보는 "나라를 지키고 민주화를 위해 몸을 바치신 분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분들의 뜻을 이어 새로운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날 하루동안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울릉도·음양 등을 동원한 요란한 선거유세 대신 광양시와 순천시내 상가밀집지역 등지를 돌며 시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과 병행해 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현충일, 그리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도민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노형태 "보훈대상 사각지대 해소" 공약발표

노형태 정의당 전남지사 후보는 6일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보훈대상 사각지대 해소 등의 4대 보훈공약을 발표했다.

노 후보는 "복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그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보답해야 한다"며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대 공약으로 ▲전남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보훈대상 사각지대 해소 ▲월 10

만원 보훈수당 보장 ▲지방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노 후보는 "보성에 전남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고, 보훈수당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보훈수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보훈수당 월 5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의료원 참전유공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부담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근산 기자

6.13.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가슴 두근거리는 그 날,
투표하세요!
유월의 따뜻한 햇볕같이
우리 동네 민주주의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6월 8일(금) ~ 6월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